

## 서울의 사회혁신정책, 도전과 미완의 여정

### 정선애

2006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DO TANK를 표방하며 설립된 희망제작소의 등장은 한국사회에 사회혁신 담론과 실천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시장이 시민이다”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정 10년은 전담조직인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해 사회혁신이 정책화되었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혁신수석과 지역혁신정책관을 신설하며 사회혁신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과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사회혁신정책은 퇴행기를 맞고 있다.

복잡한 사회적 난제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협업과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사회혁신정책은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면서 시민을 정책의 수혜자에서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만드는 긴 여정이었다. 또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사회혁신의 새로운 비전으로 전환도시를 표방하며 생태문명전환도시 서울선언과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전환적 사회혁신을 위한 핵심인프라 조성계획과 공유도시3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이후 사회혁신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 사회혁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정선애**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공동체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1996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인권재단 등에서 일했다. 2013년 초대 서울시NPO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비영리조직과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2019년부터 2년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을 역임하며 도시전환을 위한 사회혁신을 비전으로 생태문명전환과 지역기반의 순환경제모델 개발, 시민들의 일상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람 되기와 사회적 성원권”이 있다.

**Date & Time:** December 6, 2022. 12:00-13:00

**Place:** SNUAC Room 406 (4th Floor)